장 백 산 천 지

제 163 호 2010 년 3 월 26 일 금요일

미국 국회에서 제 605 호결의안을 통과하여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멈출것을 요구

지난 3 월 16 일 오후 5 시 30 분, 미국 국회중의원은 국회청사에서 투표하여 112 표 찬성, 1 표 반대로 제 605 호결의안을 통과하고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인정하기를 미국총통과 국회의원들은 응당 개인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은 파룬궁학원들의 편에 서서 모든 가능한 방식을 응용하여 파룬궁학원들을 만나보아야 하며 량지와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미국정부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표명해야 한다. 결의안의 작성자 로스레-디넌은 투표하기전 《중공이 파룬궁학원을 살륙하고 그들의 기관을 적출한 잔인성은 그야말로 상상조차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 잔인성은 로마제국황제가 기독교신도들을 사자들한테 던져주어 먹히게 한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의원 그스-비리루크스는 《중국정부는 중국의 모든 매체에 대해 심사하고 그의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모든 소식을 폭로하는 것을 저지하고있다. 오늘의 진상이 우리들앞에 똑똑히 밝혀지고 이 결의안은 중공의 수백만 피해자에게 알려져 중공정부는 진상을 덮어감출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이러한 중공의 피해자들을 잊지 않을것이다.》라고 말했다.

2009 년 7 월 16 일, 로스레-디넌은 워싱턴파룬궁집회에서 중공의 박해를 견책했다.

파룬궁인권사업조에서 련합국 인권대회에 박해진상보고를 바쳤다

지난 3 월 15 일, 파룬궁인권사업조에서 약품으로 시달리게 한 1086 건 박해진상 보고서를 제네바에서 열린 제 13 차련합국인권대회에 바쳤으며 전문인원들이 인권의 도리에 어긋난 중공의 죄행에 대해 중시할 것을 호소 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10 번째로 가장 자유롭지 못한 나라로 평가되였다.

미국국제인권단체 "자유의 집"은 최근에 년도보고서를 발표하여 세계에서 194 개 나라와 지구의 정치권과 인권상황을 평가한 결과 세계에서 인권상황이 가장 차하고 자유롭지 못한 나라들로는: 첫번째는 조선、두번째는 투르크멘스탄、세번째는 소말리아、네번째는 수단、다섯번째는 우즈베크스탄、여섯번째는 미얀마、일곱번째는 에리트레아、여덟번째는 리비아、아홉번째는 기니、열번째는 중국이다.

감옥에서 사망된 서대위를 위해 마을사람들 련맹하여 신소를 지지

료녕성무순시청원현 파룬궁학원 서대위(徐大为)가 심양동릉감옥에서 시달림을 받아 온몸의 기관이 쇠퇴되고 정신이상에 걸렸다. 8 년 형기가 만료되여 집으로 돌아온 서대위는 13 일만에 원한을 품은채 세상을 떴다.

정의를 위해 몇십명 촌민들은 자동차를 타고 동릉감옥에 가서 질문하니 감옥은 마치 대적을 만난것처럼 질겁하여 얼버무려 넘겼다. 집식구들이 계속 신소를 견지했지만 각급 사법행정기관에서는 질질 끌면서 처리해주지 않았다.

서대위집식구들의 제의하에 5 개 촌의 376 명 촌민들이 련명신을 써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신소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붙잡아 판결하지 말아야 하고 더욱히 아무 리유도 없이 시달려 죽이지 말아야 하며 정부에서는 인민의 신소에 중시를 돌려 피해자가족에게 배상해야 하며 감옥당사자들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대만 총통 마영구는 신운예술단에 축하꽃을 증송

지난 3 월 19 일, 대만민중들이 고대하던 미국신운뉴욕예술단은 대북국부기념관에서 정체로운 서막을 열었다. 대만총통 마영구(马英九), 부총통 소만장 (萧万长) 은 꽃을 증송하고 신운공연의 성공을 축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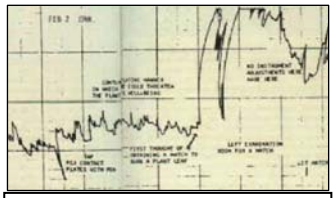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에서 7 천만명이 중공조직에서 퇴출함을 경축

지난 3 월 21 일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각계 화교들이 워싱턴광장공원에서 7 천만명 용사들이 중공에서 퇴출함을 경축하는 집회와 시위행진을 거행했다.

만물은 죄다 령(灵)이 있다

1961 년, 미국 거짓말탐지기전문가 크리브-바크스트는 거짓말탐지기의 두개 전극을 우설란잎에 련결해놓고 물을 주니 거짓말탐지기 전자기록필은 사람이 기뻐할때의 곡선을 그렸다. 그가 불로 우설란잎을 태우려고 생각하니 아직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록필은 사람이 두려워할때의 곡선을 그렸다. 바크스트는 동료들과 함께 상추、마늘、귤、바나나 등 25 종류의 식물에 대해 류사한 실험을 했는데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설란



1966 년의 실험에서 우설란의 정서의 거대한 변화를 기록한것이다.

현대의학은 사람의 뇌사유는 일종 전자파로서 뇌전자파로 표현된다. 1944 년, 노벨의학과 생물학상을 받은 미국 생물학가 어란그와 쟈사인은 사람의 사유활동은 일종 에너지표현형식으로서 우리 이 공간에서는 전자파로 표현된다고 인정했다. 남경사범대학 4 명 연구원들은 기공사의 의념작용으로 직류고스계의 지침이 돌고 숫자가 올라갔는데 자석마당중의 홀 효과와 류사했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극도로 분노하고 몹시 기뻐할때에 내쉬는 공기를 각기 따로 물속에 용해시키고 흰쥐들에게 먹였더니 앞에 용액을 먹은 흰쥐는 당장에서 죽었고 뒤의 용액을 먹은 흰쥐는 더욱 활략해졌다.

이러한 실험은 사람들에게 제시해주는바 정신과 물질은 갈라놓을수 없고 정신과 물질은 모두 1 차성이며 어떠한 물질이든지 모두 정신속성이 있으며 만물은 모다 령체가 있다.

진래감옥에서 박해를 받은 파룬궁학원 반본여

1999 년 9 월, 흑룡강성눈강현 파룬궁학원 반본려(潘本余)는 "쩐싼런"을 신앙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로동교양 1 년반 판결을 받고 진래감옥에 갇혀 악경들에게 구타、찬물끼얹기、담배불지지기 등 혹형을 당해 심장병、간복수、심근경색、각혈、얼굴부종 등 병에 걸려 생활을 자립할수 없다.

폭로 박해 연변박해소식

■ 지난 3 월 17 일, 훈춘시파룬궁수련생 학극정(郝克晶)은 악경들에게 랍치되고 집수색을 당하여 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을 빼앗겼다.

■ 3 월 3 일에 악경들에게 랍치된 화룡시팔가자 파룬궁수련생 류옥보(刘玉宝)는 로동교양 2 년 판결을 받고 지난 3 월 18 일에 구태음마하로교소로 압송되여 박해를 받고 있다.

■ 2 월 27 일에 악경들에게 랍치된 장배제(张倍齐)는 지금 연길시간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파룬따파를 적대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각 박해를 멈추고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기 바란다.